

# 레미콘産業의 94年度 回顧 및 95年度 展望

韓國레미콘工業協會 調査課

## 1. 머릿말

94년은 국내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든 한 해였다. 설비투자의 증가 및 수출증대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져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이러한 경기확장국면이 95년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건설경기도 94년도에 들어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아파트미분양 확산등 악재도 많았으나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편승하여 공장 및 상업용 건축공사가 활발하였고,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강화됨에 따라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94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1억㎡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산업의 장래는 그리 밝은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여러가지 산업여건의 변화, 예를 들면 官需레미콘제도의 폐지 검토, 레미콘업체의 건설업하도급법 적용, 현장자가배치플랜트의 양성화 도모 등 주변산업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업체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레미콘 공장의 무분별한 신·증설은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은 레미콘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2. 1994년도 건설활동 및 레미콘 수급현황

### 2.1 1994년도 국내 건설활동 동향

#### (1) 건설업생산

한국은행이 발표한 94년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되어 8.4%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성장한데 이어 제조업이 10.4%, 서비스업이 10.7% 성장하여 전반적으로 활황세를 보였으나, 농림·어업(1.2%)과 건설업(4.6%)은 전년에 비해 부진하였다.

건설업을 부문별로 보면 우선 정부부문의 경우 학교신축 등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난데다 방조제 축조 등 농업토목공사가 활기를 보여 전년 대비 9.0%증가하였다. 반면 민간부문은 토목부문에서 전력, 철도, 공항시설공사 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이 공장건설을 제외하고 대체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2.3%증가에 그쳤다.

이와 같은 건설업 성장세의 하락으로 동 기간 중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13.9%에서 13.5%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38.9%에서 39.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설공사계약액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도 건설공사계약액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대를 돌파하여 50조 8,7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0년대 중반과 비교하여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서,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액은 94년도의 40조 9,113억원보다 23.8%가 늘어난 것으로서 국내 건설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종별로 공사계약액을 살펴보면 토목부문은 도로 및 철도, 발전시설 등 SOC시설에의 투자가 하반기에 들어 활성화 됨에 따라 상반기의 부진을 벗어나 전년비 34.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건축부문도 공장과 사무실건축의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6월 이후 주거용 건축경기가 되살아나면서 17.7%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결국 94년도 상반기에는 민간건설 활동이 호조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건설 활동이 호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94년도 건축허가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건축허가 총면적은 1억 1,622만㎡로서 지난 93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를 주도한 것은 주거용 부문인데, 93년보다 8.5%가 감소된 6,339만㎡를 기록,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3년의 주택건설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데다 표준건축비 조정이 지연되면서 94년도 상반기의 허가가 계획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민간에서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住公물량의 발주가 확대되면서 예년수준 이상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업용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8%가 늘어났는데, 특히 상반기(10.4%)보다는 하반기(22.9%)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또한 상업용도 오피스텔

신축분을 타고 11.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1994년도 건설공사계약액

구분	계약액(억원)	전년비(%)	
총 계약액	508,757	23.8	
공공	합계	201,160	24.8
	토목	125,785	28.1
	건축	63,566	19.1
	주거용	18,786	16.2
	비주거용	44,780	20.3
특수	11,809	22.6	
민간	합계	307,597	23.2
	토목	22,520	84.9
	건축	276,692	17.4
	주거용	166,081	9.6
	비주거용	110,611	31.5
특수	8,385	341.3	

자료) 대한 건설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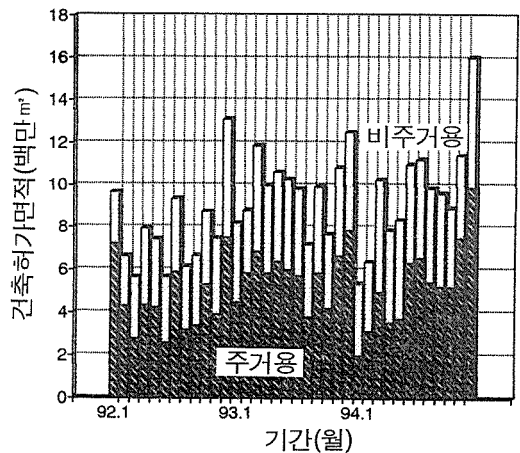


그림1. 건축허가면적 추이

## 2.2 1994년도 레미콘수급현황

94년도의 전국 레미콘 출하실적은 사상 최초로 1억<sup>m</sup>³를 돌파하여 1억 659만<sup>m</sup>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7.0%가 증가한 것인데, 레미콘의 주요 수요처인 건축부문의 경기정체상태, 구체적으로는 건축허가면적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어서 다소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건축허가면적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민간부문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건축공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아파트 및 공장건축, 사무실건축공사가 크게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 콘크리트수요량의 레미콘전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콘크리트수요량의 레미콘전환율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지방의 레미콘 수요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단위건설투자액당 그리고 단위건축면적당 레미콘소비량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요구조의 변화라기 보다는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레미콘파동이 나타났을 당시, 레미콘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건축허가면적 또는 건설투자가 90년대초와 동일하더라도 레미콘소비량은 증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4년도의 레미콘소비량은 인구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할 때 2.48<sup>m</sup>³/인(4,300만명기준)으로서 타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높은 수준이다. 이는 건설투자의 절대량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일본의 1인당 레미콘소비량이 93년 현재 1.4<sup>m</sup>³/인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레미콘소비량이 1억<sup>m</sup>³를 넘어선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외로 무난히 1억<sup>m</sup>³를 돌파하였다. 더구나 1985-1994년의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9.7%로서 20%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러한 레미콘수요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장기간 1억<sup>m</sup>³이상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94년도의 레미콘소비량을 수요별로 보면 민수부문은 7,153만<sup>m</sup>³가 출하되어 전년대비 20.0%가 증가하여 두드러진 수요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관수부문은 대구지하철건설공사 등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954만<sup>m</sup>³가 출하되어 전년대비 6.2%의 증가에 그쳤다.

민수부문에서 큰 폭의 수요증가가 이루어진 요인은 비록 민간주택건축이 미분양확산 등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 및 94년도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건축 등 설비투자를 늘렸으며, 사무실,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축도 활기를 띠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많은 수요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94년부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진 것도 일부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영·호남지역에서 민수부문의 레미콘 수요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94년도에 관수부문의 수요증가가 미흡했던 이유로는 도로,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의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발주공사의 확대 및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부족에 기인한다.

94년도의 레미콘 수요동향을 지역별로 보면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의 수요증가현상이 현저하였는데, 우선 서울·경인지역은 정부의 수도권개발계획에 따라 건설활동이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으나 94년도의 레미콘수요 증가율은 6.8%의 성장에 그쳤다. 이는 서울·경인지역의 건축활동이 예년에 비해 둔화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후 주택경기를 이끌만한 마땅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실례로써 건축활동 경기지표인 94년도 건축허가 면적을 살펴볼 때 서울 25.7% 감소, 인천 3.7% 증가, 경기 1.95% 감소로서 다소 침체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권역별로 보면 경기북부권 및 일산고양권에서는 레미콘 수요증가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일산신도시 건설과 지하철건설, 아파트, 상가건축 등에서 수요가 크게 유발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안양·수원권 및 서울권, 인천·부천권은 수요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지역은 94년도에 458만㎡를 출하하여 93년에 비해 8.2%가 증가하였는데, 수요별로는 민수부문은 19.1%가 증가하였으나 관수부문은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12.1%가 감소하였다.

충청권은 대전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90년대초에 도로신설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관계로 최근들어 관수부문의 수요가 침체되고 있으나 민수부문에서는 대전에서의 전국체전 개최, 그리고 청주인근의 아파트건설공사의 활성화에 힘입어 10% 내외의 수요증가를 이룩하였다.

전북, 광주·전남지역은 대불공업단지, 새만금 종합개발, 군장신항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관련 사업 등에 힘입어 수요증가가 지속되었다. 전북지역은 14.4%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광주·전남지역은 93년도까지는 건설경기의 둔화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94년도에는 모처럼 아파트, 상가 등 민간건축경기가 살아나 민·관수물량 공히 호조를 보여 40.2%가 증가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은 93년까지는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었으나 94년에는 대구지하철 건설공사가 본격화되고 아파트건설공사도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대구지역이 53.6%가 증가되었고, 경북지역도 27.1%가 증가되었다.

부산·경남지역은 94년도에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권 광역개발 사업,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등 아파트건설이 활기를 띠었으며, 관수물량도 93년도에 지연되었던 물량이 94년도에 추가로 발주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었는데, 93년과 비교하여 부산지역은 30.8%, 경남지역은 23.5%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표2. 지역별, 수요별 레미콘출하실적

지역	수요별	레미콘출하(m <sup>3</sup> )		증감률 (%)
		1994년	1993년	
서울경인	민需	34,184,248	31,351,158	9.0
	官需	6,872,988	7,082,417	-3.0
	計	41,057,236	38,433,575	6.8
강원	민需	3,543,844	2,975,603	19.1
	官需	1,407,768	1,601,154	-12.1
	計	4,951,612	4,576,757	8.2
충북	민需	4,063,072	3,417,720	18.9
	官需	700,589	739,155	-5.2
	計	4,763,661	4,156,875	14.6
대전충남	민需	7,980,546	7,040,746	13.3
	官需	1,727,220	1,746,432	-1.1
	計	9,707,766	8,787,178	10.5
전북	민需	3,687,218	2,942,063	25.3
	官需	1,017,743	1,171,601	-13.1
	計	4,704,961	4,113,664	14.4
광주전남	민需	7,165,129	4,834,329	48.2
	官需	1,823,716	1,574,921	15.8
	計	8,988,845	6,409,250	40.2
대구	민需	3,255,014	2,335,485	39.4
	官需	850,543	337,060	152.3
	計	4,105,557	2,672,545	53.6
경북	민需	7,159,393	5,559,818	28.8
	官需	2,512,341	2,048,844	22.6
	計	9,671,734	7,608,662	27.1
부산	민需	3,161,307	2,367,253	33.5
	官需	607,634	514,240	18.2
	計	3,768,941	2,881,493	30.8
경남	민需	10,543,219	7,937,503	32.8
	官需	2,757,095	2,221,154	24.1
	計	13,300,314	10,158,657	30.9
제주	민需	1,086,061	766,442	41.7
	官需	485,247	506,076	-4.1
	計	1,571,308	1,272,518	23.5
전국총계	민需	85,829,051	71,528,120	20.0
	官需	20,762,884	19,543,054	6.2
	計	106,591,935	91,071,174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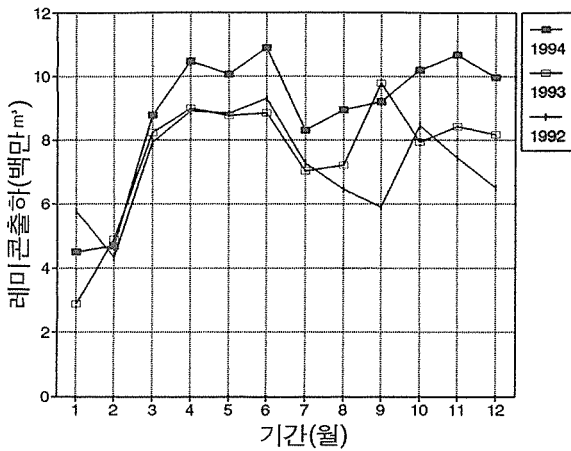


그림2. 월별 레미콘 출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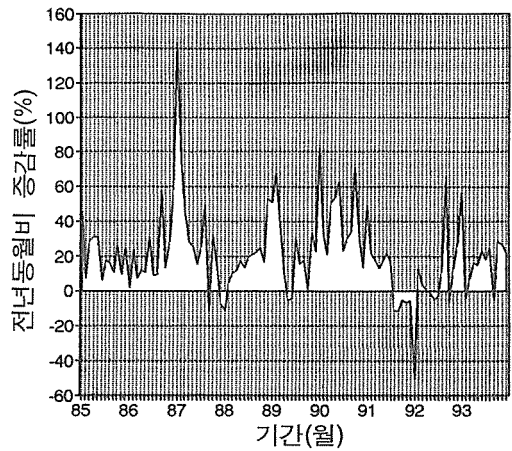


그림3. 월별 레미콘 출하 전년비 증감률

표3. 수도권지역 권역별 레미콘출하실적

권역별	1994년 레미콘출하(m <sup>3</sup> )			전년비 증감률(%)		
	민수	관수	계	민수	관수	계
서울중심권(9개사 14개공장)	6,391,344	1,835,620	8,226,954	2.7	-5.5	0.8
인천·부천권(18개사 21개공장)	6,932,880	1,384,840	8,317,720	2.0	-1.5	1.4
경기·북부권(19개사 20개공장)	3,133,840	639,365	3,773,205	16.2	12.6	15.6
경기동부권(21개사 21개공장)	5,034,471	1,059,084	6,093,555	8.3	-9.7	4.7
여주·이천권(13개사 13개공장)	1,241,531	252,210	1,493,741	20.4	13.6	19.2
안양·수원권(11개사 13개공장)	3,885,922	557,643	4,443,565	0.6	-25.3	-3.6
경기남부권(12개사 13개공장)	1,398,447	287,858	1,686,305	13.3	8.9	12.5
안산·시화권(12개사 12개공장)	2,552,362	266,291	2,818,653	15.2	19.1	15.6
일산·고양권(11개사 11개공장)	3,626,371	573,945	4,200,316	37.0	6.8	31.9
총합(101개사138개공장)	34,197,168	6,856,856	41,054,024	9.1	-3.2	6.8

### 3. 1995년도 건설활동 및 레미콘 수급전망

#### 3.1 1994년도 건설경제여건의 전망

한국은행이 94년말에 발표한 '95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국내 경제는 금년도에 설비투자과 수출의 신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건설투자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어 7.3%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등 건물 건설은 소폭 증가에 그칠것으로 예상되나 토목

건설이 SOC투자를 중심으로 활기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94년(4.2%)보다 3.3%포인트 높은 7.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전망이 양호함에 따라 건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율면에서 94년도 이래의 제조업 실제생산과 생산능력간의 격차축소 및 94년도의 성장률이 18% 정도로 너무 높았던데 따른 상대적인 반사효과 등으로 9.3%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적자지속과 무역외수지의 적자폭 확대에 올보다 더 악화된 6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도 6.0% 정

표4. 기관별 1995년 경제활동 전망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韓銀	KDI	KIET	KIF	삼성	대우	럭금	제일
경제성장률	7.3	7.1내외	7.2	7.3	7.0	7.4	7.2	7.6
민간소비	7.4	7.4	7.3	8.3	7.4	6.9	7.5	6.5
고정투자	8.2		6.8	9.2		8.0		8.2
설비	9.3	9.9	7.5	10.1	8.0	7.9	7.6	6.0
건설	7.5	9.0	8.0	8.6		8.1	6.0	9.8
상품수출 <sup>1)</sup>	8.1	8.7	10.6	10.0	10.1	9.8		10.0
상품수입 <sup>1)</sup>	9.2	9.5	10.0	15.8	9.0	9.7		9.2
경상수지(억弗)	-60	-51내외	-25	-47.5	-30	-14.2	-36	-24.1
무역수지(억弗)	-30	-31	3	-31.5	-48	11.6	-18	1.9
수출(통관) <sup>2)</sup>	11.0		10.1	11.2	11.0	10.7	10.4	10.4
수입(통관) <sup>2)</sup>	12.3		8.6	11.5	9.3	9.2	9.8	9.0
생산자물가 <sup>3)</sup>	2.7	3.6내외		2.1	2.4	3.3	2.2	3.3
소비자물가 <sup>3)</sup>	6.0	5.9내외	5.5	6.0	6.3	6.9	6.1	6.4

주: 1) KIET와 KIF는 총수출입기준, 2) 증가율(%), KIF와 제일경제연구소는 국제수지기준,

3) 기간중등락률(%),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연평균기준

도 상승하여, 94년보다 오름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부동산가격이 상당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토지 가격의 경우 SOC투자확대, 11~30대 재벌의 부동산취득 자유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의해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주택매매가격도 토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용 증대 등으로 오름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95년도 국내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7.0~7.6% 정도로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투자 증가율은 6.0~9.8%로 기관마다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기관들이 제시한 95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는 표4와 같다.

### 3.2 1995년도 건설활동 전망

국내 건설업은 1995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부동산경기회복 등으로 인하여 공공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하고, 총수주 규모 면에서는 17%가 증가하는 등 뚜렷한 호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은 지난해에 건설투자 증가율이 6.7%, 수주증가율이 14.9%를 각각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활황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92년이후 침체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과 민간건축경기가 경기순환주기상 상승국면에 놓이게 되는 데다 광역권 지역개발사업, 지자체장 선거, 시·도통합, 외국인투자자금의 대량유입 등의 건설주변환경요인을 감안할 때 95년 상반기를 고비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 (1) 건설투자 및 건축허가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규모가 작년대비 7.9%

늘어난 54조 2천억원에 이르고 건축허가면적은 1억 1,5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토목건설투자의 경우 정부·민간의 SOC투자확대(95년 대비 10% 증가) 및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등에 따라 전년비 11.5% 증가한 21조4천억원에 달해 건설경기의 활황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상업 및 공업용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역개발사업 등 건설주변환경요인을 들어 올 건축허가면적을 작년비 17.1%가 증가한 1억 3,607만㎡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20.2%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 민간주택건설이 상당히 활기를 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 건설계약액

건설협회는 올해 총수주고는 58조 3,6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수주실적인 50조9천억원(추정)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주 고 증가는 작년도의 증가추세(93년 대비 24%)보다 높은 것으로 건설업체들의 영업활동이 활기를 띠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의 64% 수준인 37조 3,400억원의 수주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공공부문은 21조 2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발주공사는 관련SOC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20%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40조 5,200억원, 토목공사가 17조8,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建協은 추정하고 있다. 또 기성액은 총 56조6,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국내업체의 매출고신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5. 건축허가면적의 예측모형

지 역	추정 모형	St. Dev.		t-ratio	
		MA 1	SMA 12	MA 1	SMA 12
서울·경인	$\nabla_{12}\nabla Z_t=(1-0.7114B)(1-0.835B B^{12})a_t$	0.0638	0.0662	11.15	12.85
강 원	$\nabla_{12}\nabla Z_t=(1-0.7877B)(1-0.8075B^{12})a_t$	0.0528	0.0643	14.91	12.55
충 북	$\nabla_{12}\nabla Z_t=(1-0.8038B)(1-0.8236B^{12})a_t$	0.0504	0.0619	15.96	13.31
대전·충남	$\nabla_{12}\nabla Z_t=(1-0.8484B)(1-0.7885B^{12})a_t$	0.0442	0.0643	19.20	12.27
전 북	$\nabla_{12}\nabla Z_t=(1-0.8198B)(1-0.8380B^{12})a_t$	0.0480	0.0605	17.10	13.85
광주·전남	$\nabla_{12}\nabla Z_t=(1-0.7850B)(1-0.8638B^{12})a_t$	0.0537	0.0687	14.61	12.58
대구·경북	$\nabla_{12}\nabla Z_t=(1-0.8151B)(1-0.7883B^{12})a_t$	0.0511	0.0632	15.96	12.47
부산·경남	$\nabla_{12}\nabla Z_t=(1-0.7476B)(1-0.8785B^{12})a_t$	0.0576	0.0618	12.98	14.21
제 주	$\nabla_{12}\nabla Z_t=(1-0.7492B)(1-0.8092B^{12})a_t$	0.0561	0.0637	13.35	12.70

이밖에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점치게 하는 호재는 실물경기의 호전과 적체된 미분양주택의 해소, 택지규제 완화, 표준건축미 현실화 등이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올해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대량유입이 80년대말과 같이 부동산시장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자체장 선거, 광역권 개발 등이 부동산경기를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주택공급확대 및 투기억제시책이 지속되는데다 외화유입규모가 과거보다 크지않기 때문이다.

### 3.3 1995년 레미콘수요 전망

1995년도의 레미콘수요는 지역별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면적을 수요유발변수(독립변수)로 하여 예측을 행하였다. 우선 1977-1995년의 건축허가면적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ARIMA(0,1,1)×(0,1,1)12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5와 같으며,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95년도의 지역별 건축허가면적을 추정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6과 같다.

1995년도 지역별 레미콘수요량은 표5의 모형에 의거, 예측한 건축허가면적예상치를 아래의 식

에 대입하여 예측을 행하였으며, 예측결과는 표7에 정리하였다.

$$R_t = r_1 \times r_2 \times 0.01SI \times \left[ \left( \sum_{t=1}^{t-8} Pt \right) / 9 \right]$$

$R_t$ : t월의 레미콘수요량

$r_1$ : 시멘트소비량대비 레미콘소비량( $m^3$ /톤, 1993-1994년)

$r_2$ : 건축허가면적대비 시멘트소비량(톤/ $m^2$ , 1980-1994년)

SI: 시멘트소비량의 계절변동지수

$P_t$ : t월의 건축허가면적

예측결과에 의하면 금년 전국의 레미콘수요량은 1억 1,645만 $m^3$ 에 달하여 94년 대비 9.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의 수요처인 서울·경인 지역은 4,442만 $m^3$ 를 출하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대비 8.2%의 안정된 수요증가를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강원, 충북, 광주·전남 지역의 수요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올해 전국의 레미콘수급사정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훨씬 웃돌아 대체적으로 안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성수기에는 원자재 공급부족으로 서울, 부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일시적



표6. 지역별 건축허가면적의 예측

지역 기간	서울 경인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전국
1/4	10897 30.6	885 12.3	1009 10.2	2470 -7.7	977 -2.1	2070 47.9	4281 28.9	3770 20.2	219 -44.9	26577 20.9
2/4	16896 52.6	1561 46.1	1447 9.6	3129 32.6	1633 46.4	2907 26.4	5826 48.4	5278 41.8	287 -6.0	38964 43.3
3/4	13783 11.2	1347 30.8	1269 -8.8	3032 13.5	1600 7.0	2924 43.0	5530 7.0	5017 27.3	241 -0.1	34743 14.4
4/4	11539 -33.3	1130 2.3	1091 20.7	2822 18.9	1314 5.9	2822 -11.4	5279 9.9	5381 3.3	238 8.9	31617 -13.0
년계	53115 8.2	4923 23.3	4816 6.3	11453 13.6	5524 13.9	10723 20.1	20915 21.5	19447 21.5	985 -15.2	131901 13.8

주)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비 예상증감률임

인 공급난이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우선 올해 건설경기는 주택수요의 증가로 재건축과 증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중대형빌라, 상가 및 오피스텔건물의 신축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5%내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레미콘수요도 전년보다 약9.2% 늘어난 1억 1,645만m<sup>3</sup>에 이

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연간 레미콘생산가능량은 전국의 620여개 공장이 총 2억 3천 5백m<sup>3</sup>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요량보다 생산능력이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수요공급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레미콘수요가 집중되는 봄, 가을 건설성수기시에는 주요원자재인 벌크시멘트와 골재공급량 여부에

표7. 1995년도 지역별 레미콘수요의 예측

지역 기간	서울 경인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전국
1/4	7233 -1.0	865 58.9	928 33.5	1566 14.8	766 7.2	1693 10.3	2705 20.5	2571 -22.2	219 -11.3	18546 3.3
2/4	13271 6.4	1620 -5.1	1588 -1.6	2786 -6.3	1273 -14.1	3093 29.2	4747 24.6	4663 3.1	365 -13.7	33406 6.4
3/4	12054 22.3	1678 28.1	1539 33.5	2806 14.1	1331 15.5	2932 32.2	4727 32.0	4533 6.4	359 -17.4	31959 20.9
4/4	11864 3.9	1760 26.5	1622 24.6	2992 2.9	1453 7.2	2995 5.4	4866 17.5	4623 -7.1	364 -22.0	32539 5.7
년계	44422 8.2	5923 19.6	5677 19.2	10150 4.6	4823 2.5	10712 19.2	17045 23.7	16390 -4.0	1307 -16.8	116450 9.2

주)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비 예상증감률임

따라 레미콘수급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원자재공급이 부족할 경우 레미콘 공장의 가동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서울, 부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적기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3.4 1995년 시멘트, 골재 수요전망

#### (1) 시멘트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95년 시멘트수급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시멘트수요량은 총 5,340만톤으로 94년도의 5,223만톤에 비해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건설투자가 주거용 회복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나 건설투자증가를 예상치인 11.5%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부문별로는 수요의 경우 내수량은 올보다 2.2% 증가한 5,3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은 수출선과 해외시장상황등을 감안할 때 94년보다 33%정도 증가한 1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급부문에선 생산의 경우 실제 생산가능량은 5,66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업체의 실제 생산조건과 수출입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실생산계획량은 94년도보다 6.4% 늘어난 5,4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은 성수기의 수급안정을 위해 일부 수입이 예상되나 9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부는 95년도에 들어 시멘트수요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생산능력수준으로는 성수기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금년부터 유통사일로 26기 18만9천톤을 증설하는 한편, 연안지역의 시멘트 수급원활화를 위해 아산권을 비롯 광양권, 인천남권, 영종도 신공항 등에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성수기의 일시적 수요집중에 따른 수급대책으로 비수기엔 가급적 적정재고를 유지해 나가고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상될 경우 적기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골재

건설교통부는 95년도 골재수요를 94년보다 8.4%가 증가한 1억9,600만 $m^3$ 로 추정하고, 수요량중 1억 5,800만 $m^3$ 는 하천, 산림, 바다골재 등 허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3,800만 $m^3$ 는 각종 개발사업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로 충당키로 했다. 허가를 통해 공급될 골재중 하천골재는 전체 허가공급량의 40.8%인 6,122만 $m^3$ , 산림골재는 31.3%인 4,960만 $m^3$ , 바다골재는 19.8%인 3,200만 $m^3$ , 육상골재는 8.1%인 1,557만 $m^3$  등으로서 부존량이 점차 고갈되는 하천골재와 환경보호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산림골재의 공급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대신 바다골재와 육상골재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7,975만 $m^3$ , 강원 1,513만 $m^3$ , 충북 863만 $m^3$ , 대전·충남 1,971만 $m^3$ , 전북 1,288만 $m^3$ , 광주·전남 1,408만 $m^3$ , 대구·경북 1,786만 $m^3$ , 부산·경남 2,599만 $m^3$ , 제주 234만 $m^3$  등이다.

한편 건교부는 골재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지정하던 골재채취예정지를 부존량을 감안, 최장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지에서 채취되는 육상골재는 예정지 지정없이 채취허가만으로 채취가 가능토록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라도 문화재지정권자가 동의하면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5년도의 건설경제여건은 점차 회복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레미콘 등 자재수요량도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95년도의 레미콘 수급여건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하

---

반기의 수급여건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원자재의 수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골재의 수급이 지자체에서 골재채취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외에 한강 미사리지역의 골재채취가 완료됨에 따라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한강하류에서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극심한 파동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심지역의 12개 레미콘공장을 도시외곽으로 이전시킬 계획으

로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전에 따른 생산공백 및 공급거리의 원거리화에 따라 수급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레미콘의 수급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원자재의 공급안정을 위한 면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도심지 레미콘공장의 이전문제에는 건설업계 및 레미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하여 도심지내에 현존시키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심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단계적인 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